

도심 속에서 푸르른 정원 만난다

전주시, 6월 2~6일까지 종합경기장 등서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우수한 품종의 다양한 식물소재와 예술적인 정원 소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정원문화박람회가 다음 달 전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신헌)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원, 문화와 경제의 상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조성에서 벗어나 정원 관련 식물과 소품, 시설물 등의 소재를 거래하는 장으로 제공하는 등 정원 소재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시는 이 박람회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가족형 박람회이자 전주시 정원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지속가능한 박람회,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등 친환경 박람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박람회 핵심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에는 식물과 비료·종묘·시설물 등 39곳의 생산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는 소류 형태의 샘플가든이 생기고, 친환경·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전주 예술가들이 만든 정원 도구 25점이 전시된다. 박람회 주제를 전달하는 메시지 가든인 영상정원 1개소와 단단계 테라스 구조인 화원, 가족, 동호회, 학생 등 시민이 참여하는 끝까지 않는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원 50개소도 조성된다.

전주종합경기장 박람회장은 사전예약을 받아 100인 이내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가운데 오전 10시와 낮 12시, 오후 2시와 4시 등 1일 4차례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시간 30분 관람 뒤 30분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전시부스는 1m 간격으로 떨어져 운영된다. 구도심으로 공원이 부족한 노송동 일원에는 특별한 도시 공공정원이 들어선다. 전문작가 3명과 시민작가 4명,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중노

송동 삼상어린이집 정원에서 전주소시혁신센터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에 꽃과 식물이 가득한 가든로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주시 양묘장과 팔복예술공장에는 전문작가 4인이 전주정신 '꽃심' 중 대동, 풍류, 울곧음 등을 주제로 초청정원을 만든다.

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원에서 재배된 작물로 요리를 시연하는 '요리의 정원'과 정원과 어울리는 국악, 재즈, 인디음악 공연인 '음악이 있는 뜰', '전주는 도시정원이다'를 주제로 한 '정원 토크쇼' 등이 마련됐다. 또 권춘희 작가와 정현경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특강과 각종 정원 등을 2개 코스로 탐방하는 정원 투어도 이어진다.

시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전주종합경기장에 조성된 정원 식물 등을 공원과 공공기관, 곳곳의 어울림 정원에 보식할 방침이다.

최신헌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신품종의 식물 소재와 예술적 정원시설물, 소품들이 상설 전시장 방식으로 전시되고 도시 곳곳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돼 정원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정원문화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도심 속에서 푸르른 정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나눔 문화 확산 '으뜸자원봉사자' 7명 선정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시상식 갖고 총 7명 전주시장 표창

아이스팩을 기부 받아 재활용에 앞장선 시민 등 총 7명의 시민이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7일 전주시장실에서 2021년 1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갖고, 일반인 5명과 청소년 2명 등 총 7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전주시역 23만 여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 활동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의 정량평가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시상된다.

일반인 부문에는 ▲야간 방법활동에 힘쓴 송천동생활안전협의회 소속 김대준 씨(66·남)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생활지도를 펼친 필리핀 모델레스 카렌(Moreles Karen) 수녀(37·여)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놀이 업무를 지원한 백민석 씨(24·남)가 선정됐다.

본인의 사업장 내에 별도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전주시장실에서 2021년 1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갖고, 총 7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는 봉사활동을 펼친 알뜰맘봉사단의 배준범 씨(39·남)와 황요셉 씨(39·남)도 함께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부문의 경우 어울림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등 봉사를 펼친 정희수 학생(19·여)과 희망찬 발달재활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한 전건형 학생(17·남)이 선

정됐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과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된다

장마철마다 지속돼왔던 전주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의 차량 침수피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주시가 집중호우 발생 시 둔치주차장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내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국비 1억2,5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시는 주차장 출입구 2곳에 차량번호 인식기와 차단기, CCTV, 문자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운영 서버 등 장비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시즌2 운영

전주 전라감영에 가면 해설투어와 방탈출 게임, OX퀴즈를 즐길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라감영에서 '2021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시즌2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3~4월 시즌1에 이어 다시 돌아온 시즌2는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추진된다.

시즌2는 ▲전라 관찰사 역사 해설투어 ▲전라감영배, 관찰사를 이겨라!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이벤트 등 '전라 관찰사와 떠나는 역사테마놀이'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라 관찰사 해설투어는 참여자들이 호남의 수부를 관리했던 서유구, 최유경, 김성근, 조한국, 안경공 등 전라관찰사를 맡은 5명의 배우로부터 생생하고 재미있는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해설투어는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 진행된다.

'전라감영배, 관찰사를 이겨라!'는 조선왕조 역사 속 인물 5명의 관찰사와 즐기는 놀이 콘텐츠다. ▲몸으로 말해요 ▲배달통을 보아라 ▲전라감영 OX 퀴즈 ▲창과 방패 등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지목한 관찰사와 게임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전주만의 특별한 상품이 주어진다.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이벤트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모든 날짜의 신청이 마감됐다.

전주문화재야행 기간인 다음 달 18일과 19일에는 야간에도 진행된다.

전라감영 입장 및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나 문화예술공작소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